

(2021 성경칼럼 3번째 : 물이 포도주가 된 의미)

요한복음 2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비 합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결코 실현 될 수 없는 것이 기능화되고 현실화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물이 포도주’ 가 된 사건이다. (요한 2:7-11) 이런 비합리적인 경우에 기독교에서 흔히 강요되고 받아 들여져야 하는 것이 두가지 가 있다. 바로 ‘믿음’ 과 ‘순종’ 이다. 믿음은 모든 비 합리적인 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영적 이해 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떤 의문과 의심도 배제 되어야 한다. 순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항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 합리적인 것을 받아 들이려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요구 되고 순종이라는 행동만이 요구 된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로 저항없이 받아 들여지곤 한다.

사실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결코 일어 날 수가 없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는 물이 필요가 없다. 포도주는 물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는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이스트’ 와 단맛을 내는 당분 두가지를 가진 유일한 과일이다. 다른 과일로 와인을 만들려면 당분을(설탕) 투입 해야만 한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는 먼저 포도주를 재배하고, 수확한 포도주를 으깨어 즙을 내서 발효 시킨후에 정확한 온도에 맞추어 발효를 관리한 후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다) 숙성 시켜 찌꺼기를 걸러내는 안정화 과정을 통과한 후 여과 장치를 거쳐 병입을 한다. 이 과정이 아무리 짧아도 한달 이상이 걸리고 더 좋은 포도주는 수년의 과정이 지나기도 한다.

요한복음 2장의 연회장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는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요한 2:9) '물로된 포도주' 라고 성경에 명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요한 2:9-10).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로된 포도주를 마신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유대인의 정결예식인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 포도주는 얼마든지 다른데서 구해 올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여한 가나 혼인 잔치의 목적은 분명했다. 예수님께서 없는 포도주를 만드셔야만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비 합리적인 사건인 '말씀이 육신' 이 된 과정을 설명 할수 없듯이 '물이 포도주가 된' 비 합리적인 사건도 설명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 잔치는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 잔치가 준비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믿음은 비 합리적인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 될수 없다. (기독교가 자주 그렇게 강요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비 합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비 합리적인 사건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이 창조 된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비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 해야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 1:14) 고 선언한 요한은 가나 혼인 잔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다.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될수 없지만 물로된 포도주가

된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강요되고 순종이 요구 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 날것처럼 말이다. 요구되고 강요되는 것은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일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수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면 믿음의 강요도 순종도 필요 없이 믿게 되고 따라 가게되어있다. 기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기적의 사건에 비중을 두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에 중심을 두자! 아멘!